

젓가락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개로 우리는 젓가락질을 할 수 없다. 젓가락은 원래부터 2개가 함께 만들어진단다. 분명 우리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만들어진 젓가락처럼 짝이 잘 맞을까? 그것은 남편의 타고난 품성으로 자로 잰 듯 서로의 역할과 가치를 맞추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그와 함께 만나 그를 소개한 사람들은 나의 제자들이었다. 당시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커피숍을 방문하여 우리의 학습을 도와줄 선생님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을 때, 학생들은 우리의 키 차이에 많이 놀랐다고 전해 주었다. 즉, 뒷모습을 보면 한쪽 젓가락이 너무 짧은 것이다. 그러나, 키가 작은 나의 외관은 그와 같은 길이의 젓가락이 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6년 정도 만남을 가진 후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한 후 그는 요리와 설비 담당이었고, 몸집이 작고 동선이 작게 움직이는 나는 빨래와 청소를 담당했다. 어느 순간부터 세심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아진 나는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정확한 지시를 내리면 따르겠다며 정리한 후에 말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쓰레기를 버리는 일과 요리 후 음식물 처리 담당을 추가로 맡았다. 나는 정신 노동에 시달리는 직업을 가졌고, 남편은 주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육체적 에너지를 보호해 주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혼 생활이 5년 정도 지나자 불필요한 큰 짐들이 쌓이기 시작하여,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간 사이 인부 3분을 모셔 큰 짐을 정리한 후, 유튜브를 보며 청소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 후, 그는 내가 청소를 더 많이 하는 것에 미안해하며 대신 내가 운영하는 상가의 큰 짐을 옮기거나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스스로 정하였고, 내가 못 가면 혼자라도 가서 대형 폐기물을 버리고 와 주기도 하였다.

남편이 대신 해 주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출산’이다. 남편은 병약한 나의 수명을 염려하며 먼저 아이를 낳지 않기로 이야기를 꺼내었다. 취약한 건강을 알고도 결혼식을 올린 것도 모자라 나의 수명 뿐만 아니라, 다소 적은 수면 시간에 대해 항상 걱정해 주었다. 나는 2026년 1월부터 평균 7시간의 수면을 채워 남편에게 보여 주었고, 남편의 건강도 함께 챙겨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면서, 그에게 생일 선물로 운동복 세트를 선물해 주었다. 육체 노동에 시달리며 운동을 기피하던 그는 오늘도 열심히 쥐가 난 다리를 이끌고 운동을 다녀왔다. 그는 나를 위해 운동을 한다. 함께 건강해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집안일의 공평한 분담도, 건강에 대한 공평한 노력도, 그와 내가 나란히 함께 할 수 있는 평등한 부부가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나는 그에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한다. 배우자이면서 인내심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처럼 의외의 잘못된 습관을 보여주며 나의 애를 태우기도 하지만 그는 나의 잔소리를 늘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해 왔다. 나 또한 그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며 고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의 카톡은 서로의 운동과 식단을 자랑하는 공간이 되었다. 내가 일하러 가는 시간에 남편은 집에 도착하는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나에게 그는 운동한 인증 사진을 보내며 내가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맛있는 늦은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도 우리 부부는 젓가락 행진을 한다.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본다.